

□ 지역·의료원판 신설에 부쳐

단힌 상아탑을 벗고 어울림의 터로

지역의료원판 신설, 대학과 지역간의 조화기대

이른 새벽, 간밤의 상흔이 가지지 않은 회기를 걷는다. 골목마다 널려 있는 지난 밤의 흔적들, 한때의 화려함이 토해놓은 배설물들이다. 화려했던 내온과 그사이를 어깨동무하며 비집고 다녔던 어제의 모습들이 떠오른다. 원가를 계속 쏟아만 버리고 싶었던 마음, 분리수거 하지 않고 모두 한번에 몰아버리고 싶은 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새벽에 다시찾은 이거리는 허무하다. 도대체 간밤의 그 에너지는 다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열기 왕성했던 그 목소리들과 힘찬 몸짓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발걸음을 등용문쪽으로 돌린다. 육중한 벽돌이 만들어진 웅장한 문. 숭고한 상아탑을 육망의 배설장과 구분하는 강력한 경계선. 마치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되는 자동차처럼 교묘한데 들어왔을때의 느낌은 판이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시치미를 댔다고 해도 회기는 경희의 또다른 얼굴일 수 밖에 없다. 정문앞으로 수없이 들어선 저 간판간판들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드러낸다면 지나친 추측인가?

그동안 대학의 역할이 좀 더 거시적인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된 4.19로부터 80년대 말까지 대학, 구체적으로 말해 학생운동의 중요한 목표는



▲치과대학에서 바라본 경희 의료원과 회기동 모습.

사회 변혁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상황은 좀 달라진다. 사회의 진보를 위해 대학이 무엇을 해야 할까하는 물음과 동시에 "대학 자체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하는 질문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는 것만 믿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던 일상으로의 저공비행을 결심한 것이다. 대중제

기간중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기획되고 학내의 학생 복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답이 나오지는 못한 것 같다. 우리의 일상, 일상이 열리는 이공간들은 여전히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니까. 등용문에서 회기역까지 걸어보라. 거기에 희망이 있는가? 서로 공유하고 함께 나

눌 무엇이 있는가? 거리는 오직 팔아먹기만을 외치고 있지 않나?

그러므로 지역속에서 대학이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대학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는 몇몇 이벤트성 행사와 캠퍼스가 주민의 좋은 안식처가 되고 있다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학과 지역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우리가 밥을 먹고 술을 마시

고 싶던 좋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거닐지 않으면 안되는 이거리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기 위해서는 정기적이며 꾸준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우리신문이 지역 의료원판을 신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해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학"이던 "대학이 끼어든 지역"이던 간에 문제는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숨쉬는 것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지역과 대학이 숨통을 틔울 구멍은 많다. 양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쪽이 잘되면 다른쪽에도 좋은 공동운명체이고 무엇보다 서로의 빈틈을 채워 줄 수 있다. 지역경제가 대학을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는 만큼 지역은 대학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대학은 본연의 역할을 살려 지역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등용문은 더 이상 선악의 갈림길에서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의 변은 이정도다. 지금은 강양쪽에 있는 배를 실로 이은 듯 불안전한 마음이지만 언젠가는 가는 실이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 두 배가 모두 바다에 나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바람으로 이 면을 엮어 갈까 한다.

(최수정 기자)



우리마을 지킴이

회기동장 심희경씨를 만나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우리 신문에서 지역면을 만드는데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대한영이지요. 경희대학교는 회기동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수 없잖아요. 회기 속에 경희가 있고, 경희의 발전이 곧 회기지역의 발전이 되겠지요. 따라서 지역면을 만드는 것이 공존공생의 관계에 있는 경희와 회기가 보다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으로써 경희대학교에 바랄점이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교육기관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잖아요.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이 강조되어 가는 지금, 경희에서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와 회기가 서로 불신관계에 쌓여있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경희는

결국 고립될 수 밖에 없겠지요. 경희측에서도 무료의료서비스나 건강교실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것 같이 마음이 뚫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회기동 문화를 살펴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움의 전당 코앞에서 창조적, 문화적 정서가 형성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소비지향적 거리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듯 해서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학생들도 좀더 깊이있는 사고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의식과 애郷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회기동 만들기에 동참하길 바래요. 길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고, 아무곳이나 담배꽂이를 버리는 등의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랑이랄 것까지는 없고, 도덕성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아래를 잘 챙기는 훈훈한 정이 남아있지요. 뒷새 같은 것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타지역 사람이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여도 마음, 정신, 행동으로 도와주는 미덕이 살아있지요.

(최용섭 기자)

지역·의료원 소식

경남고성군 의료봉사활동 실시

경희의료원은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간 경남 고성군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실시되는 고성군 의료봉사는 우리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고성군 주민 및 이웃오지주민의 건강보호, 그리고 이미지 쇄신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진료장소는 고성군 청소년 회관이며, 질병분포는 신경통, 고혈압, 당뇨, 관절염, 편도염등으로 알려져 치료할 계획이다. 예상진료인원은 2천명에서 2천5백명이며, 진료과는 부속병원 4개과(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와 한방병원 5개과(부인과, 재활의학과, 한방1내과, 한방6내과, 한방소아과)이다.

의료구성원은 부속병원 의료진 7명과 간호직 11명, 한방병원의 의료진 5명과 간호직 3명 및 총 45명으로 되어있다.

또한 의료구성원 45명중 KBS 취재진이 8명 포함되어 있다. 취재진들은 라디

오를 통해 진료현장의 모습들을 전국으로 생방송 할 예정이며, 고성군 지역 KBS를 통해 TV로 방영된다.

한방병원 응급실 이전

한방병원 응급실이 신관 지하1층에서 별관 현관 응급실(전 CT실) 옆으로 지난 19일 이전했다. 부속병원 응급실 확장공사로 인해 12명 가량의 현 응급실로 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출입구와 거리가 멀어 불편했던 과거 신관 지하1층 응급실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14안내전화번호 폐쇄

지난 7월 구내전화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화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114 안내전화번호를 폐쇄하였다. 총무과는 월 2천여만

원의 의료원 전화비중 114번 이용이 월 1천통을 상회한다고 평가하고 작은 것부터 아끼자는 취지로 시행하였다. 이로써 월 약8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총무과는 114번의 폐쇄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량리 전화국의 전화번호 안내 CD-ROM을 무료로 공급받아 각 부서에 배부하여 직접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경희의료원소식 폐간

경희의료원 홍보실에서 발행하던 '경희의료원소식'이 8월 25일자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그동안 직원, 환자, 언론사, 가정주부등을 위한 독자층으로 확보하고 있던 '경희의료원소식'지는 의료원의 방침에 따라 '의료원보'를 월간으로 전환하게 된다.

홍보팀측은 '의료원보'에서 보다 나은 정보와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대문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보육수요급증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17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표 참조)

시설명	전화번호	시설명	전화번호	시설명	전화번호
동대문 213-7994	옛	삼 962-5519	늘사랑 969-6096		
대 245-9544	전동2동	213-7974	청량리 962-6404		
장 안 212-5178	회	경 243-2831	장안2동	247-2226	
대 212-6096	이문3동	969-2052	별	215-0248	
장 안 212-1036	회기동	969-6691	배	217-2070	
전동3동	244-8703	새 동구	960-7900		

국악대공연 개최

동대문구에서는 가을을 맞아 한국국악 협회와 한국예총주관으로 구민들의 문화적 감동을 해소하고자 국악대공연을 연다. 9월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전통무용, 경기민요, 판소리 등이 공연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 문화공보담당관(920-4410)으로 하면 된다.

녹색서울환경감시단 활동개시

시민 환경감시교육 이수자나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 구

성된 동대문구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이 지난 8월20일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80명 내외로 구성된 이 감시단은 대기분야, 수질분야, 생활환경 저해원분야, 녹지보존분야 등 4개조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 감시단원은 일상생활 중 보고 관찰하여 온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수시로 구청에 통보 처리토록 하는 모니터링도 병행 운영하게 된다.

동대문구에서는 환경감시단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환경감시에 참여하는 구민의 폭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구민자치에 의한 환경자치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의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동대문구 환경과(920-4370)로 문의하기 바란다.

회기동사무소 서예교실 운영

회기동사무소에서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의 정서함양과 취미생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예교실은 매주 화,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시되며

장소는 회기동사무소 2층 회의실이다.

수원, 교통난 해결 파란불

경희대-신갈간 도로확장공사가 올해안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경희대-신갈간 시내버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의 차선이 적어 출퇴근시간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었던 이 지역을 영통지구 아파트 입주에 맞춰 시내버스 운행도 연장 또는 신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섭 총무과장은 "신갈-경희대간 버스구간 뿐 아니라 수원시내까지의 연계도 올해 안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리 하숙집 수요 급증

서천리 주변 자취방과 하숙집의 수요가 급증해 지방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개강과 맞춰 개원하기로 했던 우정원의 공사가 다음학기 완공으로 지연됨에 따라 그동안 우정원 입실을 계획하고 있던 많은 학생들이 자취와 하숙으로 몰려 방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천리 부동산업자는 "학생들의 갑작스런 방 수요가 급증해 방값이 오를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 회계법인인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Business Consultant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동회계법인'을 주목하십시오

▶국내 회계법인 중 최초로 산업별 전문 서비스부문 조직(금융, 건설, Hi-Tech, Entertainment, Media & Communication, Oil & Gas, Corporate Finance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다국적기업 고객보유 (IBM, Eastman Kodak, Shell, Exxon, Corning, Du Pont, Sony, Nike Hewlett-Packard 등 다수)

▶최고의 인재를 찾습니다



▶특별 발탁인사(특별승진) 및 차별화된 급여

▶세계 최우량 회계법인인 Price Waterhouse의 적극적인 자원과 업무제휴

▶1997년 국내 최고 및 최대의 IT컨설팅 전문업체인 Price Waterhouse CSG의 설립으로 고객에 대한 최고수준의 전산 용역 제공

▶지속적인 언어교육(국내 및 해외) 및 산업별 전문 기술교육 지원

▶신입사원 전원 해외 연수(1주일간)

젊은 인재는 젊은 회계법인을 찾습니다

世東會計法人 Price Waterhous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안생명 63빌딩 14/15층 TEL:768~9500(4대)

PAGODA

개강 9월 1일 현재접수중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http://www.pagodaac.com

미국인 영어회화

SLE (개반 12명/ 1월 1시간/ 1년 완성)
집중 영어회화 (1월 5시간/ 2시간)

일본어

기초 일본어 (문법 특약) 3달 완성
일본인 회화 (10달 완성)

영어

기초 영어회화
TOEIC·TOEFL·G·TELP
GRE·GMAT·AFKN
READING·문법·WRITING

L.C. (정취력 특별과정)

유학·진학·취업영어
※ 석·박사 출신의 노련한 강사진

NEW 최신 프로그램

1대1 통신문학 (TEL 723-6874)
대학원 영어
모스크바 대학유학반

전문 프로그램

미국 WISCONSIN 대학반
독어·불어
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

영어친구들

중로 276-0579(영여전구) 강남 553-0579(영여전구) 신촌 719-0579(영여전구)
입구정 516-0579(영여전구) 부산서면 (051)802-0579(영여전구)



파고다외국어학원